

## 기관종양의 외과적 치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이 증 호 · 김 용 환 · 심 성 보 · 박 재 길 · 왕 영 필 · 곽 문 섭 · 김 세 화

기관종양은 인체종양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드문 종양이나 발생위치의 특수성으로 단순촬영으로는 진단하기 곤란하며, 증상이 있어도 호흡곤란, 흉통 등의 비특이적인 양상을 보여 진단시 종양의 원격전이나 주변장기 침범에 따른 암병기에 의한 예후인자보다는 기도폐쇄나 질식 등에 의한 위험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1981년부터 1996년 7월까지 약 15년 동안 치험한 14례의 기관종양을 임상 양상과 치료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연령분포는 6세에서 79세이나 평균 46세로 대부분 40대 전후에 호발하였다. 성비에 있어서는 남자 5명, 여자 9례로 여자에서 더 많았다. 또한 종양은 악성이 9례, 양성인 5례로 타보고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악성이 더 많았는데, 조직학적 분류로는 편평상피암이 3례, 선양낭성 상피암이 5례, 점막상피암이 1례이었고, 양성종양은 유두종, glomus tumor, 지방종, 혼합선종, 평활근종이 각각 1례씩 있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인데 4례에서는 환자는 장기간 천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증상발현후 확진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8.4개월 이었다. 진단에 있어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는 종양의 위치, 주변조직과의 관계, 주변 침범정도를 알기 위해 CT검사가 시행되었고, 기관지경검사로 종양의 조직적 진단과 기도폐쇄완화를 위해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었다. 치료방법에 있어서는 개방성 절제는 9례에서 가능하였고, 1례는 대혈관 침입이 관찰되어 불완전 절제를 하였고 나머지 4례는 환자상태나 수술거부로 방사선 치료, 레이저 광응고술, 내시경하 종양절제술 등이 이용되었다. 치료 결과로는 2례에서 수술 사망을 하였는데, 1례는 술후 광범위절제에 따른 문합부의 파열과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이었고, 1례는 문합부의 긴장완화를 위한 설골상부 후두부박리에 따른 후두부 부종으로 질식사하였다. 악성종양 9례중 1례는 불완전 절제를 하였고, 5례에서는 완전절제가 가능하였다. 양성종양 5례중 4례는 개방성 절제를 하였고 1례는 기관지내시경하 종양절제가 가능하였다.

저자들은 14례의 기관종양환자에서 평균 연령이 46세이었고, 성비가 5:9로 여자에서 더 많았으며 또한 악성이 9례로 기관종양에서 악성이 더 흔한 종양임을 확인하였고, 치료는 개방성절제가 9례에서 가능하였고, 수술사망율이 25%이었다. 조직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천식증 증세, 상기도 부위의 천명음, 발작성 기침등이 있을때, 조기에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권장된다.